





하종현의 초기 작업(1959-1975)을 집중 조명하는 《하종현 5975》는 작가가 다룬 물질과 회화적 기법이 시대적·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했는지를 탐구합니다. 하종현은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격동에 반응하며, 다양한 재료와 물질성에 대한 실험을 확장해왔습니다. 그의 작업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과 개인적 경험을 재구성하고, 회화의 가능성에 질문하며, 회화의 전통적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하종현이 미술 대학을 졸업한 1959년부터 현재 그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접합〉 연작을 시작한 직후인 1975년까지의 기간을 총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 ‘1부: 전후의 황폐한 현실과 앵포르멜(1959-1965)’에서는 전쟁 후의 황폐한 사회 현실을 담아낸 작업을 다룹니다. 하종현은 두꺼운 물감 표면을 불에 그을리는 등 재료와 행위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남긴 집단적 기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작업은 이후 하종현이 물질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회화의 경계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부: 도시화와 기하학적 추상(1967-1970)’에서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구조적 형태로 추상화한

작업을 소개합니다. 하종현은 강렬한 색채와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적 경관의 역동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단청 문양과 색조, 돛자리 직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적 미학과 현대적 조형 언어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하종현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진화했는지 조명합니다.

전시는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활동을 중심으로 하종현이 펼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살펴보는 ‘3부: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새로운 미술 운동 시기(1969-1975)’와 그의 대표 연작 <접합>의 초기 작업들을 만날 수 있는 ‘4부: 접합—배압법(1974-1975)’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하종현은 회화가 가진 매체적 한계를 넘어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실험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한 가지 방법론에 안주하지 않았던 하종현의 작업은 그가 경험한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종현은 마대자루, 철조망, 스프링, 신문지 등 일상 재료를 활용해 사물이 담고 있는 시대상과 물질의 특성, 작가의 신체적 행위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작업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1974년에 시작된 <접합> 연작은 하종현의 다양한 실험과 물질적 탐구의 집약체로서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종현은 직조된 마대자루를 캔버스 삼아 물감을 뒷면에 바른 후 앞면으로 밀어내는 독창적인 제작 기법을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에서 재료와 표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하종현의 초기 작업은 특정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을 통해 전통과 혁신의 경계에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평면과 입체라는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와 전통이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하는지를 탐구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종현 5975》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하종현의 실험 정신이 초기 작업 전반을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종현이 남긴 시간의 흔적, 재료와 물성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며, 그의 작품 속에 내재된 시대적 메시지와 물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부: 전후의 황폐한 현실과 앵포르멜

1959-1965

하종현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다니던 그는 대학 입학 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1959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 후반, 하종현은 당시 유럽에서 등장한 앵포르멜 운동의 영향을 받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앵포르멜은 전후의 황폐한 현실을 반영하며 정형화된 회화의 틀을 부정하고 물질성과 즉흥성을 강조한 예술 경향으로, 하종현은 이를 한국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여 시대의 정서를 구현했습니다. 작가는 물감을 두껍게 바른 실 덩어리를 불에 그을려 거친 질감을 만드는 등 재료와 기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전후의 사회적 혼란이 남긴 집단적 기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하종현이 이후 작업에서 펼친 물질과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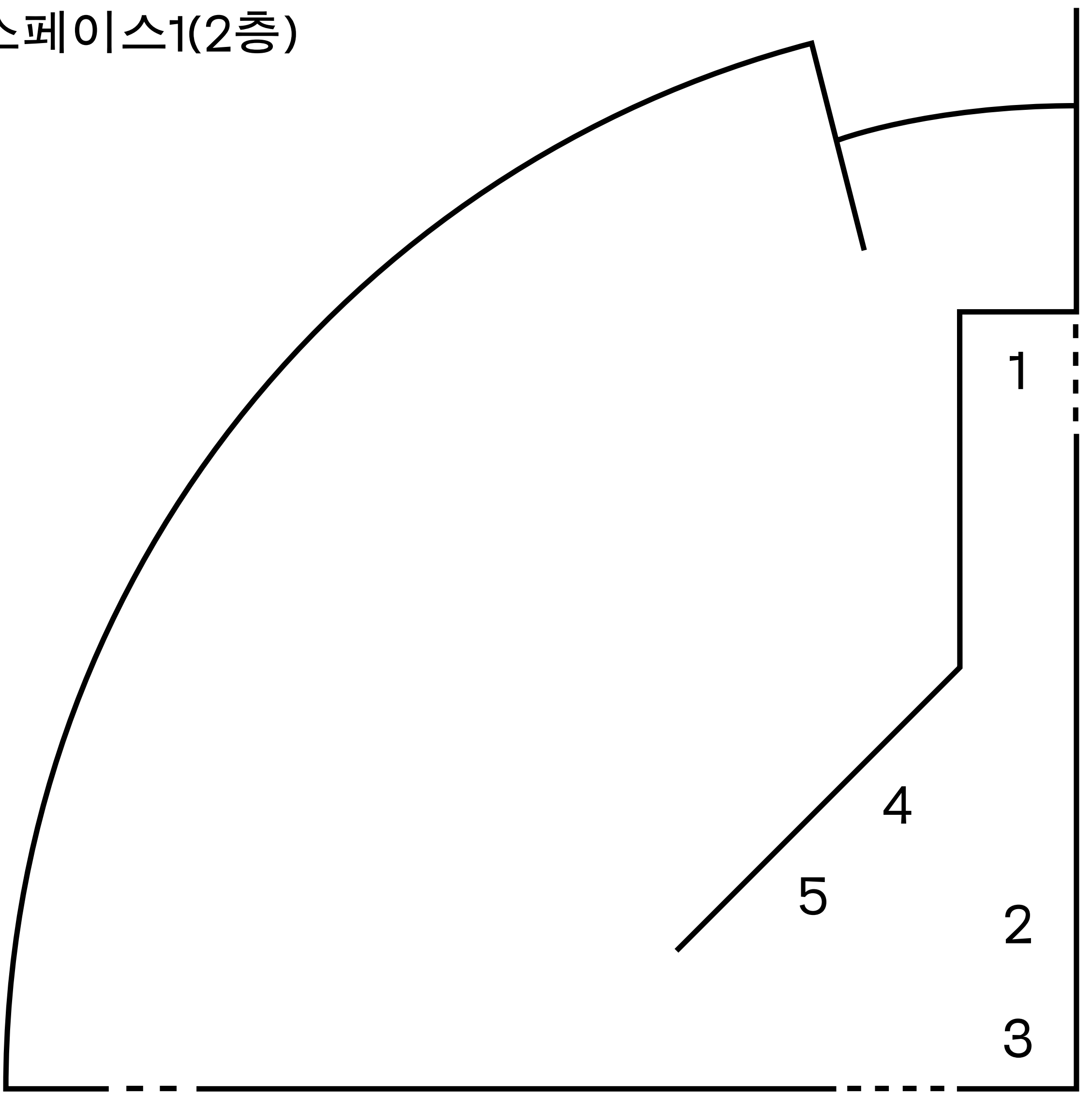
↑  
목차로 이동  
|

A

SJ

C

# 스페이스1(2층)



## 1부: 전후의 황폐한 현실과 앵포르멜

1. <자화상>, 1959, 캔버스에 유채, 63×40 cm.
2. <부적-A>, 1965,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63×113 cm.
3. <작품 C>, 1962,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62×130 cm.
4. <무제>, 1965,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45.5×112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5. <무제>, 1965,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45.5×112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목차로 이동  
↓

A

SJ

C



## 2부: 도시화와 기하학적 추상

1967-1970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하종현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작업의 주제로 삼아 이전 작업들과는 대비되는 채도가 높은 추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도시계획백서> 연작에서는 제 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구조적 형태로 추상화하였습니다. 하종현은 도시의 형성과 변화를 강렬한 색채와 반복적인 패턴으로 시각화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적 경관의 역동성을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업한 <탄생> 연작에서는 캔버스를 길게 잘라 직조하듯 엮고, 한국적 전통인 단청 문양과 색조를 재해석하여 전통적 미학과 현대적 조형 언어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하종현은 캔버스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어 붙이거나 캔버스 하단을 입체적으로 구부리는 등 회화의 고정된 형식을 넘어서는 도전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회화의 매체적 한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탄생>과 <도시계획백서> 연작은 근대화로 인해 소멸해가는 전통과 새롭게 형성되는 근대화적 구조라는 상반된 두 요소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  
목차로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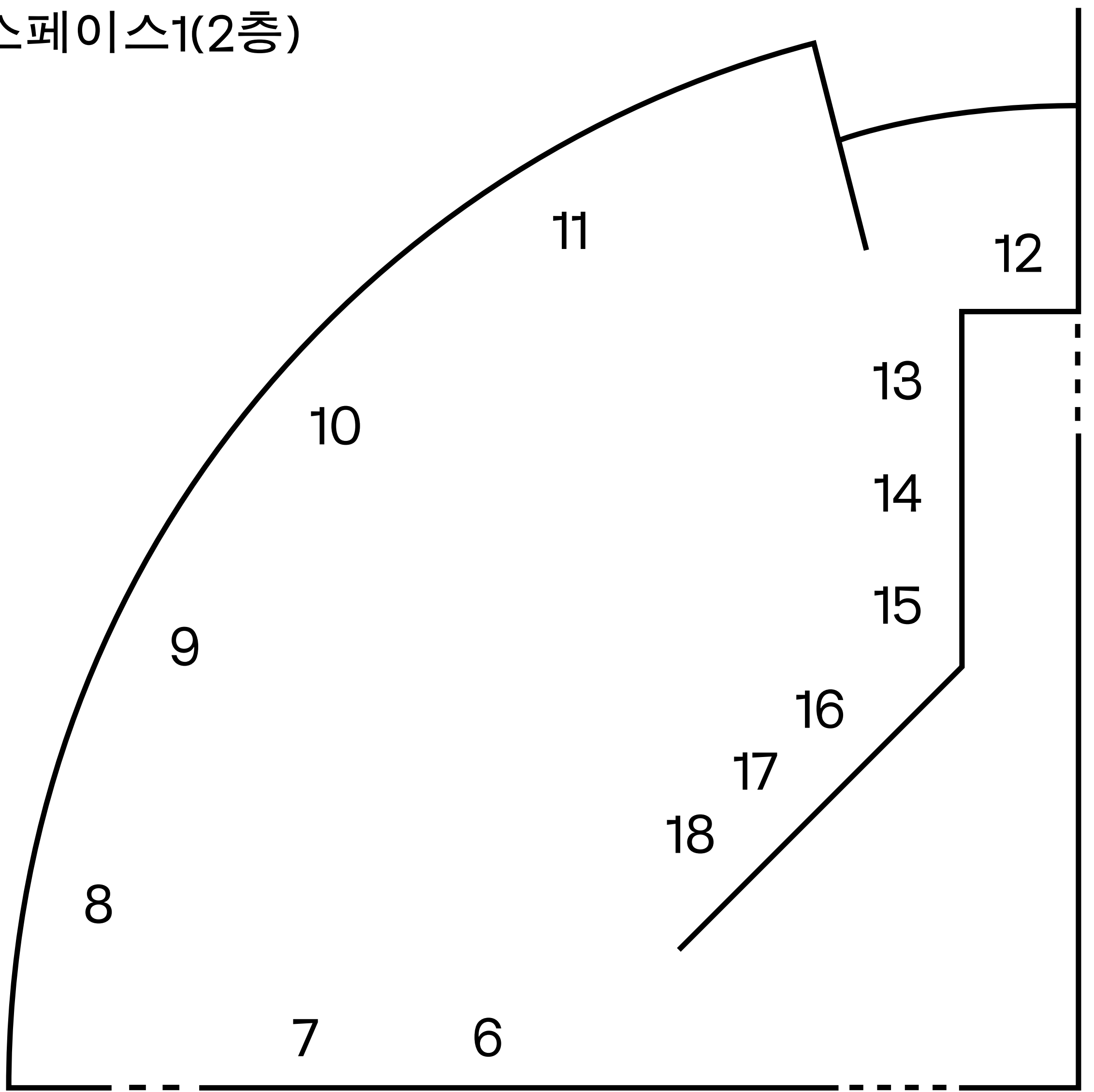
A

SJ

C



스페이스1(2층)



2부: 도시화와 기하학적 추상

6. <탄생 67>, 1967,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94×94 cm.
7. <탄생 A>, 1967,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30×162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8. <1967탄생 C시리즈>, 1967,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61×260 cm.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9. <탄생-B>, 1967,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145.5×193.9 cm.
10. <탄생 67-A, B>, 1967(2000년 재제작),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200×300 cm.
11. <탄생 67-1, 2>, 1967(2000년 재제작),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200×30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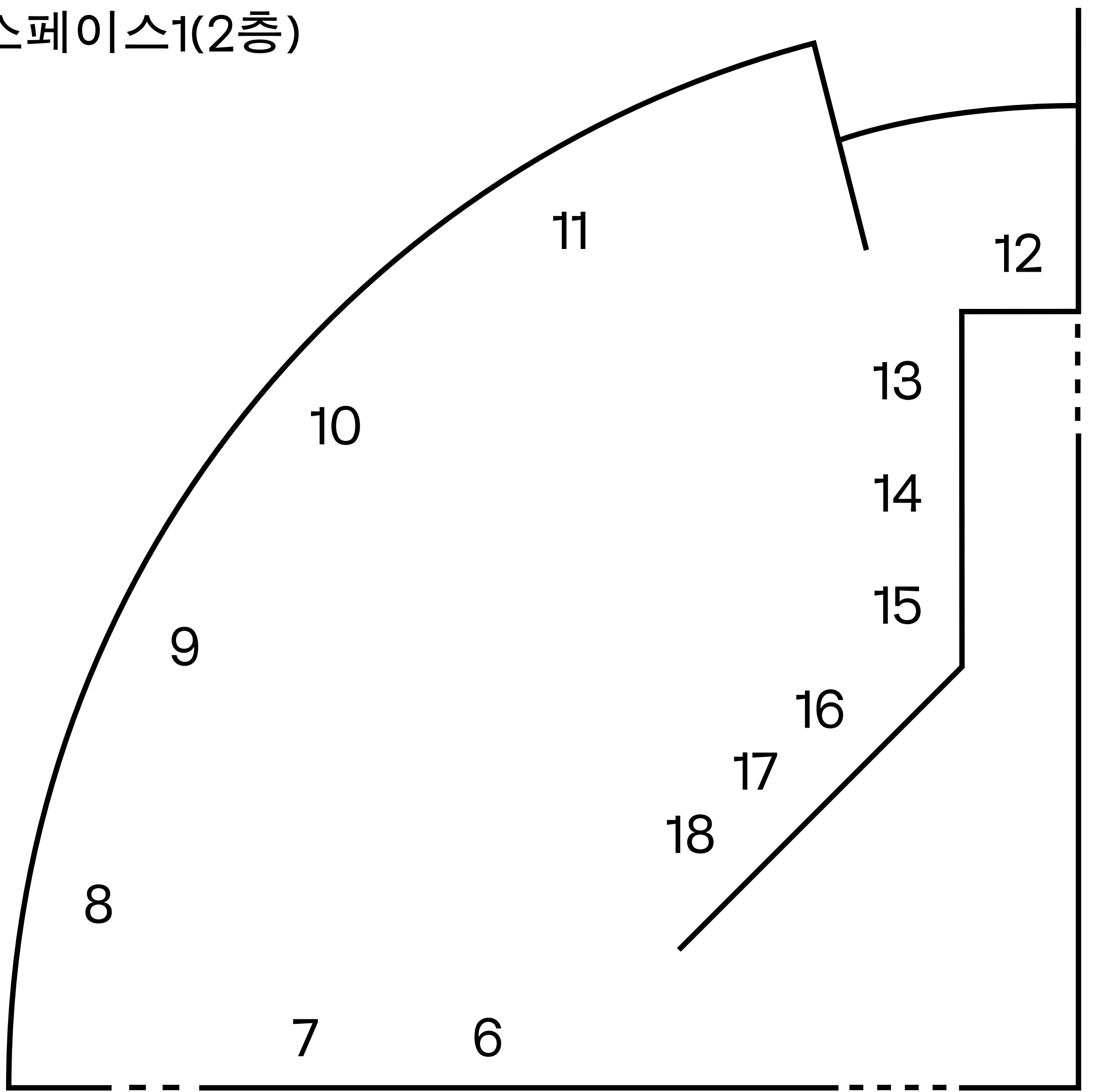
↑  
목차로 이동  
|

**A**

**SJ**

**C**

스페이스1(2층)



- 12. <도시계획백서 No.1>, 1970, 지본판화실크, 50.9×34.4 cm.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 13. <도시계획백서>, 1970, 캔버스에 유채, 80×80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14. <도시계획백서 No.5>, 1968, 캔버스에 유채, 116×116 cm.
- 15. <도시계획백서 No.4>, 1968, 캔버스에 유채,  
120.7×120.7 cm.
- 16. <도시계획백서 68>, 1968, 캔버스에 유채, 120×120 cm.
- 17. <도시계획백서 67-2>, 1967, 캔버스에 유채, 120×120 cm.
- 18. <도시계획백서 67>, 1967, 캔버스에 유채, 112×112 cm.

↑  
목차로 이동  
|

**A**

**SJ**

**C**



## 한국아방가르드협회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는 1969년 결성되어 1975년까지 활동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적 작업과 새로운 예술적 접근 방식을 선보인 단체입니다. AG는 “전위 예술에의 강한 의식을 전제로 비전 빈곤의 한국 화단에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 창조해 한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AG 선언, 1969)는 모토 아래, 전위미술을 추구하며 전통적 형식과 매체를 탈피한 작업들을 이어왔습니다. 이일, 오광수, 김인환 등 열두 명의 작가와 이론가가 협회의 중심을 이루며, 이들은 협회지 발간과 전시 기획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발간된 총 네 권의 협회지 『AG』는 현대미술의 국제적 담론을 국내에 소개하며 전위적 예술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G』는 마르셀 뒤샹, 루치오 폰타나, 크리스토 등 주요 국제 작가들의 작업과 이론을 다루었으며, 서구 미술계의 담론을 번역해 한국 미술계에 전파했습니다. 이 협회지는 작가의 실험을 비평적 시각으로 조망하며, 이론적 접근을 통한 전위미술의 정체성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  
목차로 이동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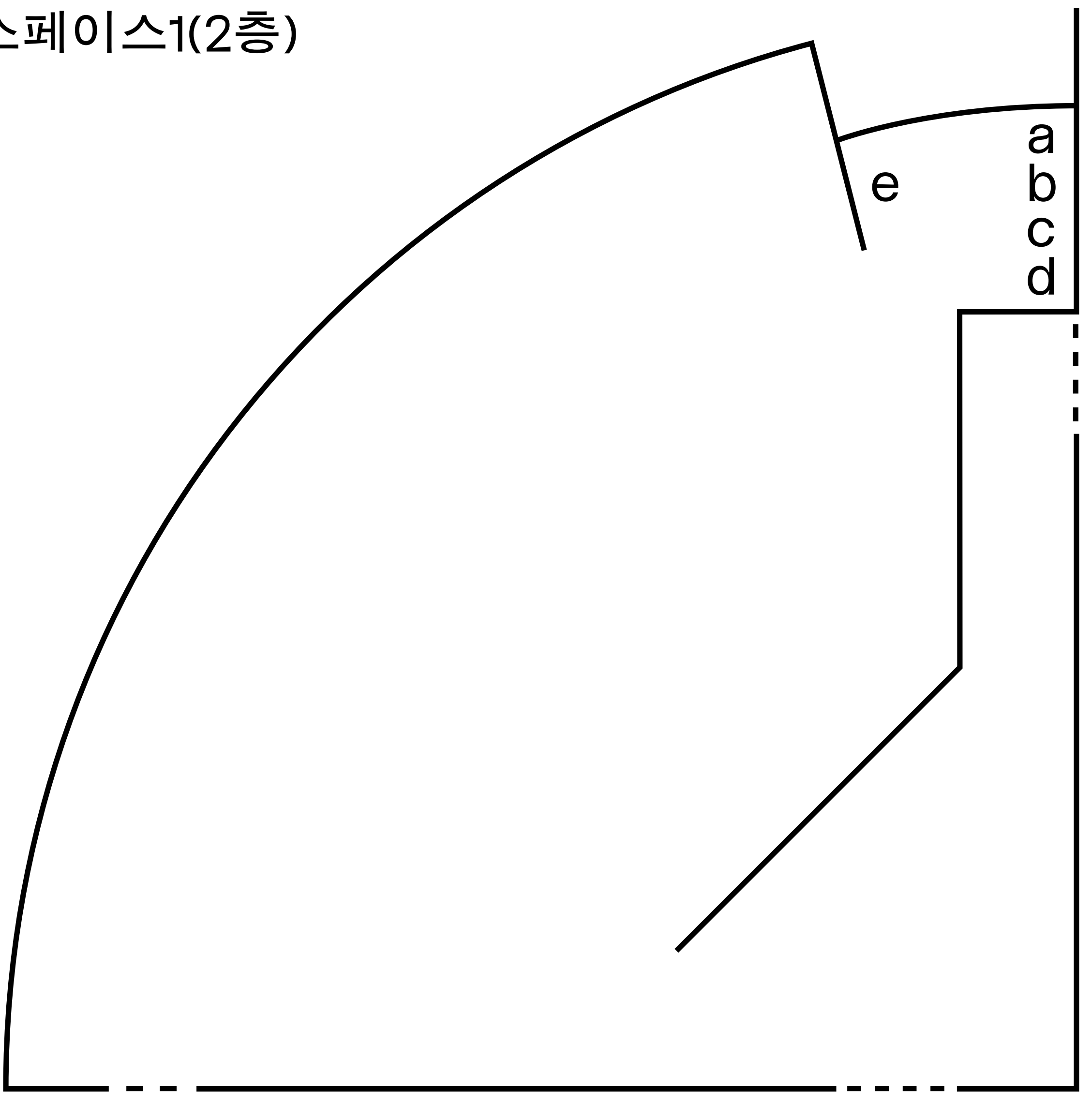
SJ

C

AG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개최한 네 번의 《AG전》과 한 번의 《서울비엔날레》는 기존의 전통적 전시 형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접근법과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1970년 5월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70년 AG전: 확장과 환원의 역학》을 시작으로, 1971년 12월 《71년 AG전: 현실과 실현》, 1972년 12월 《72년 AG전: 탈관념의 세계》 그리고 AG 회원 하중현, 이견용, 김한, 신학철만 참여한 마지막 《AG전》이 1975년에 열렸습니다. 1974년에는 AG 회원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여러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서울비엔날레》를 주최하여 전시의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비엔날레라는 전시의 형식을 탐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975년 《AG전》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AG는 일상적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매체적 제약을 넘어선 실험적인 작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AG의 이러한 전위적인 활동은 당시 한국 현대미술에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스페이스1(2층)



한국아방가르드협회

- a. 『AG』 1호, 1969, 25×18cm,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김삼랑 기증).
- b. 『AG』 2호, 1970, 25×19cm,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김삼랑 기증).
- c. 『AG』 3호, 1970, 25×19cm,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김삼랑 기증).
- d. 『AG』 4호, 1971, 25×19cm,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김삼랑 기증).
- e. 《71-AG 현실과 실현 (現實과實現)》(1971. 12. 6. – 20.,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포스터, 1971, 84×114 cm,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

↑  
목차로 이동  
|

A

SJ

C

### 3부: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 —새로운 미술 운동 시기

1969-1975

1969년, 하종현은 평론가 이일을 비롯한 열두 명의 작가와 이론가로 구성된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를 결성하며 미학적, 철학적 교류를 확대하고 작업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AG는 당시 한국 현대미술에서 실험적 작업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협회지를 발간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등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종현은 철망을 비롯해 신문, 휴지, 시멘트 가루, 스프링 등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일상적 재료를 사용한 실험적인 작업들을 통해 당시의 경직된 사회와 언론 검열, 사회적 억압을 은유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하종현은 평면 위에 철사를 구부려 박거나 직접 스프링을 제작해 붙이고, 가시철망으로 캔버스를 감싸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회화에 입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회화적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고 전통적인 회화의 틀을 넘어서고자 한 하종현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도면으로만 남아 있는 거울 설치

↑  
목차로 이동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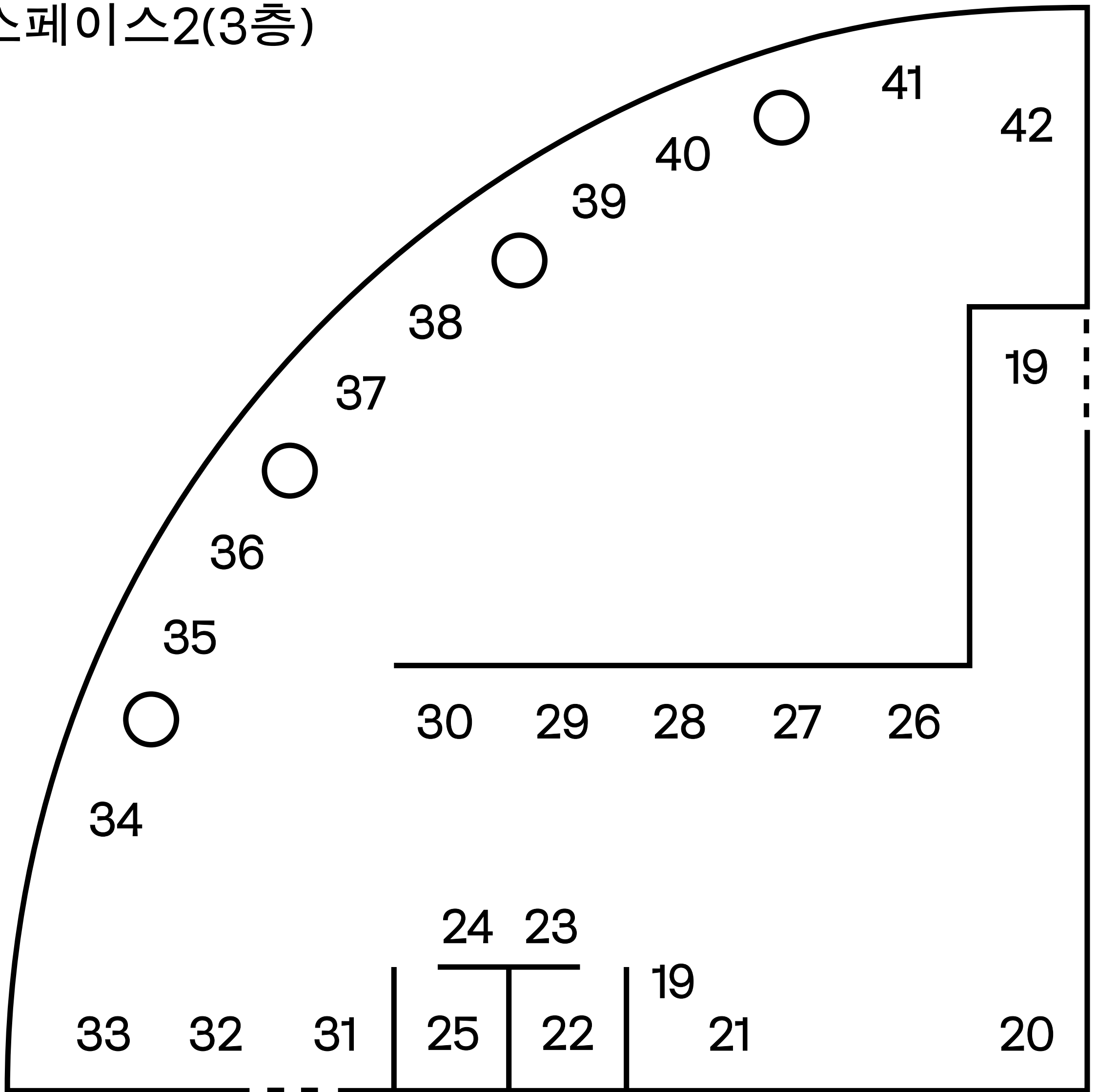
SJ

C



작업 〈작품〉(1970)을 재현하여 AG의 첫 전시였던 《70년 AG전》(1970) 이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거울과 두개골 및 골반 엑스레이 필름을 재료로 활용해, 전위적인 설치 형식을 시도한 작업입니다. 하종현은 거울 속에 반사되는 엑스레이 필름의 유동적인 상의 관계를 탐구하며 물질과 이미지의 상호작용을 실험했습니다. 또다른 설치 작업 〈대위〉(1971)는 하종현이 오랜 기간동안 모은 검열된 신문더미와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동일한 크기의 백지를 나란히 쌓아 올림으로써 당시의 언론 통제와 억압 상황에 고요하면서도 강렬하게 응답합니다. 이처럼 하종현의 AG 활동 시기 작업은 새로운 물질과 형식의 실험을 넘어 시대의 무게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이스2(3층)



3부: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새로운 미술 운동 시기

19. <관계>(1971) 홍익대학교 설치 전경, 연도 미상, 패널에 사진, 99×99 cm  
<관계> (1971) 홍익대학교 설치 전경, 2025, 패널에 사진, 58.3×70 cm.
20. <작품>, 1970(2025 재제작), 거울, 두개골 및 골반 엑스레이, 혼합매체, 가변크기.
21. <대위(對位)>(1971) 설치 사진, 연도 미상, 패널에 사진, 91×85 cm.  
<대위(對位)>, 1971(2012년 재제작), 신문, 종이, 91.5×111.5×8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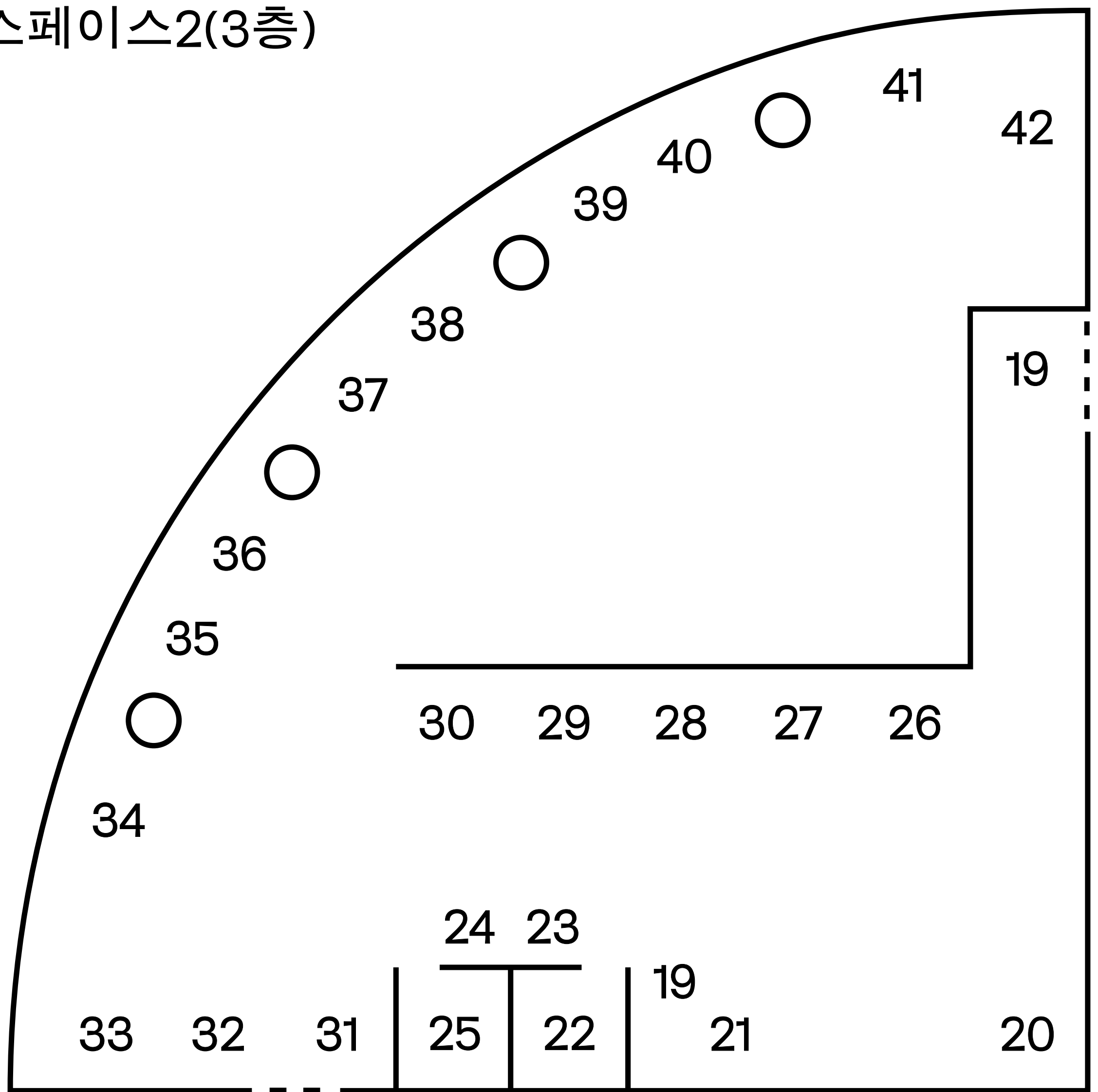
↑  
목차로 이동  
|

A

SJ

C

스페이스2(3층)



- 22. <관계 72-11> (1972) 도쿄 긴화랑 설치 전경  
(1972년 3월 6일-12일), 2025, 패널에 사진, 50×41.6 cm.  
<관계 72-11>, 1972(2025년 재제작),  
나무 각목, 밧줄, 가변크기.
- 23. <작품 72-A1>, 1972, 패널에 유채, 60×60cm.
- 24. <작품 72-B1>, 1972, 패널에 유채, 60×60cm.
- 25. <관계 72-9> (1972) 도쿄 긴화랑 설치 전경(1972년 3월  
6일-12일), 2025, 패널에 사진, 50×41.6 cm.  
<관계 72-9>, 1972(2025년 재제작), 나무 각목, 밧줄,  
가변크기.
- 26. <무제 72-3(A)>, 1972, 패널에 용수철, 74×150 cm.
- 27. <무제 72-3(B)>, 1972, 패널에 용수철, 74×150 cm.

↑  
목차로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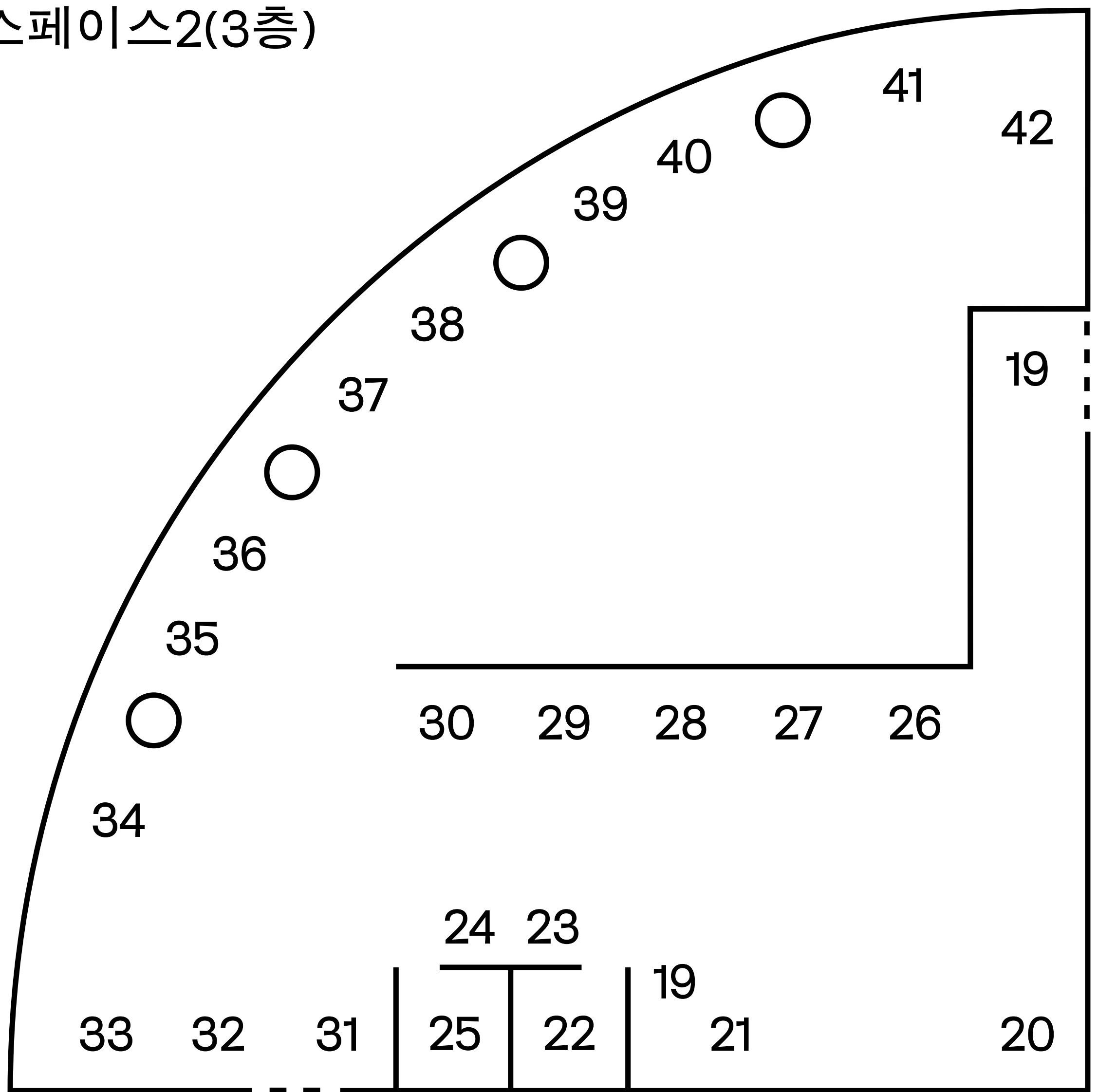
A

SJ

C



스페이스2(3층)



- 28. <무제 72>, 1973, 패넬에 용수철, 74×68×15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29. <작품 73>, 1973, 캔버스에 용수철, 45.5×53 cm.
- 30. <작품 73>, 1973, 패넬에 철조망, 60×60 cm.
- 31. <작품 72-7>(1972) 설치 사진, 연도 미상, 패넬에 사진,  
61×116 cm.  
<작품 72-7>, 1972(2025년 재제작), 휴지, 가변크기.
- 32. <작품 72-7> (1972) 설치 사진, 연도 미상, 패넬에 사진,  
115×81 cm.
- 33. <관계 72-1>, 1972(2025년 재제작), 나무, 밧줄,  
50×181×29 cm.

↑  
목차로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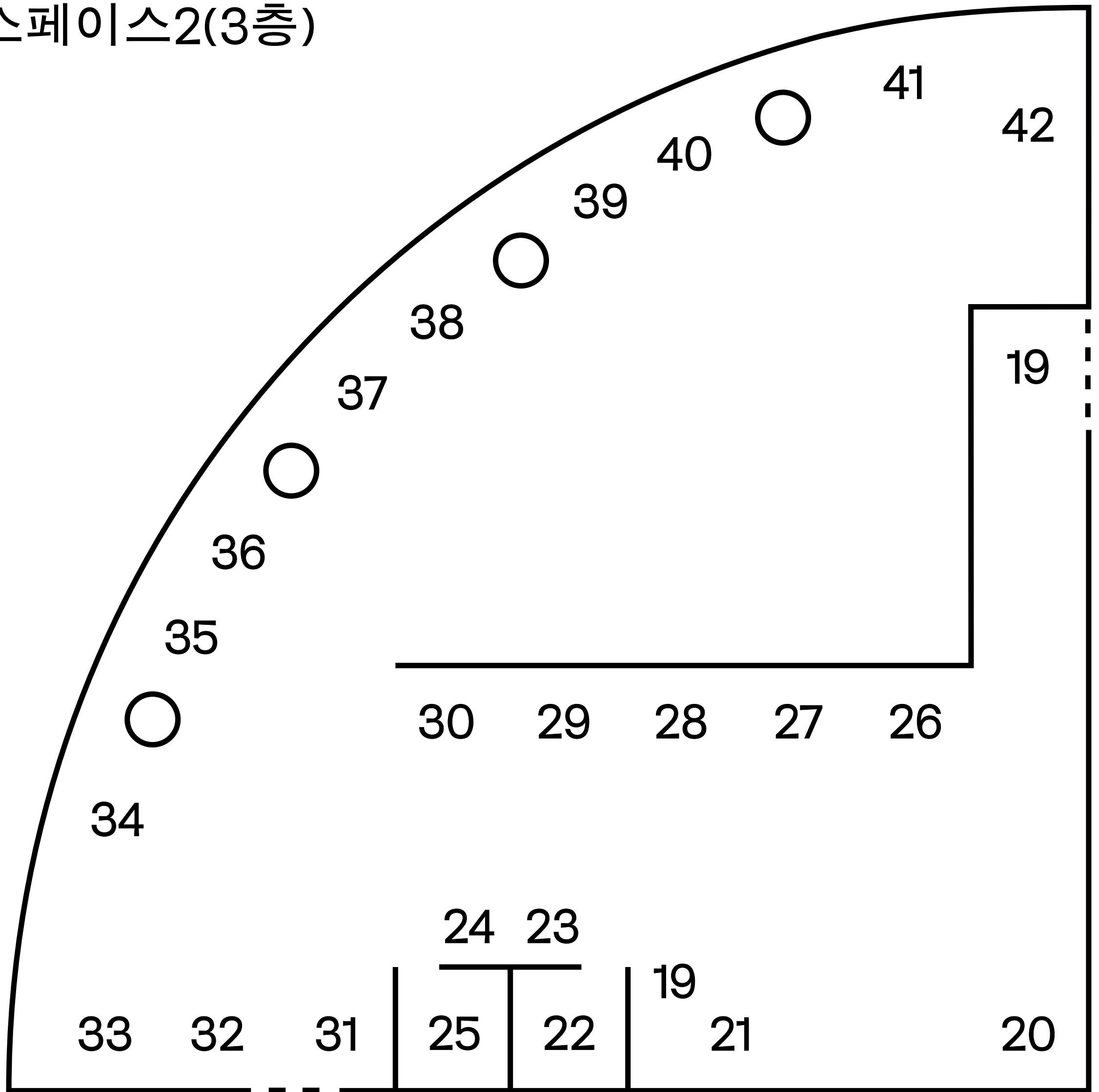
A

SJ

C



스페이스2(3층)



- 39. <무제 73-1>, 1973, 패널에 용수철, 122×244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40. <무제 73-2>, 1973, 패널에 용수철, 122×245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41. <작품 73-2>, 1973-2000, 패널에 용수철, 124.5×247 cm.
- 42. <작품 73-15(A)>, 1973, 패널에 철조망, 115×115 cm.

↑  
목차로 이동  
|

**A**

**SJ**

**C**



## 4부: 접합—배압법

1974-1975

하종현은 1974년, <접합> 연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입체 실험에서 얻은 효과를 평면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작가는 회화의 평면성을 실험하기 위해 올이 성긴 마대자루를 캔버스로 활용하여 그 뒷면에 유성 물감을 듬뿍 바른 뒤 커다란 나무 주걱과 같은 도구로 물감을 밀어내는 ‘배압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제작 기법은 회화의 뒷면에서 시작한 작업의 결과가 앞면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조된 마대자루 표면을 투과해 흘러나온 물감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질감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작가의 신체적 행위와 물질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접합> 연작은 2010년부터 <이후 접합>이라는 또다른 연작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도 하종현의 작업 세계를 대표하는 주요 작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 접합>은 초기 작업의 기법과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된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선보이며 하종현의 실험 정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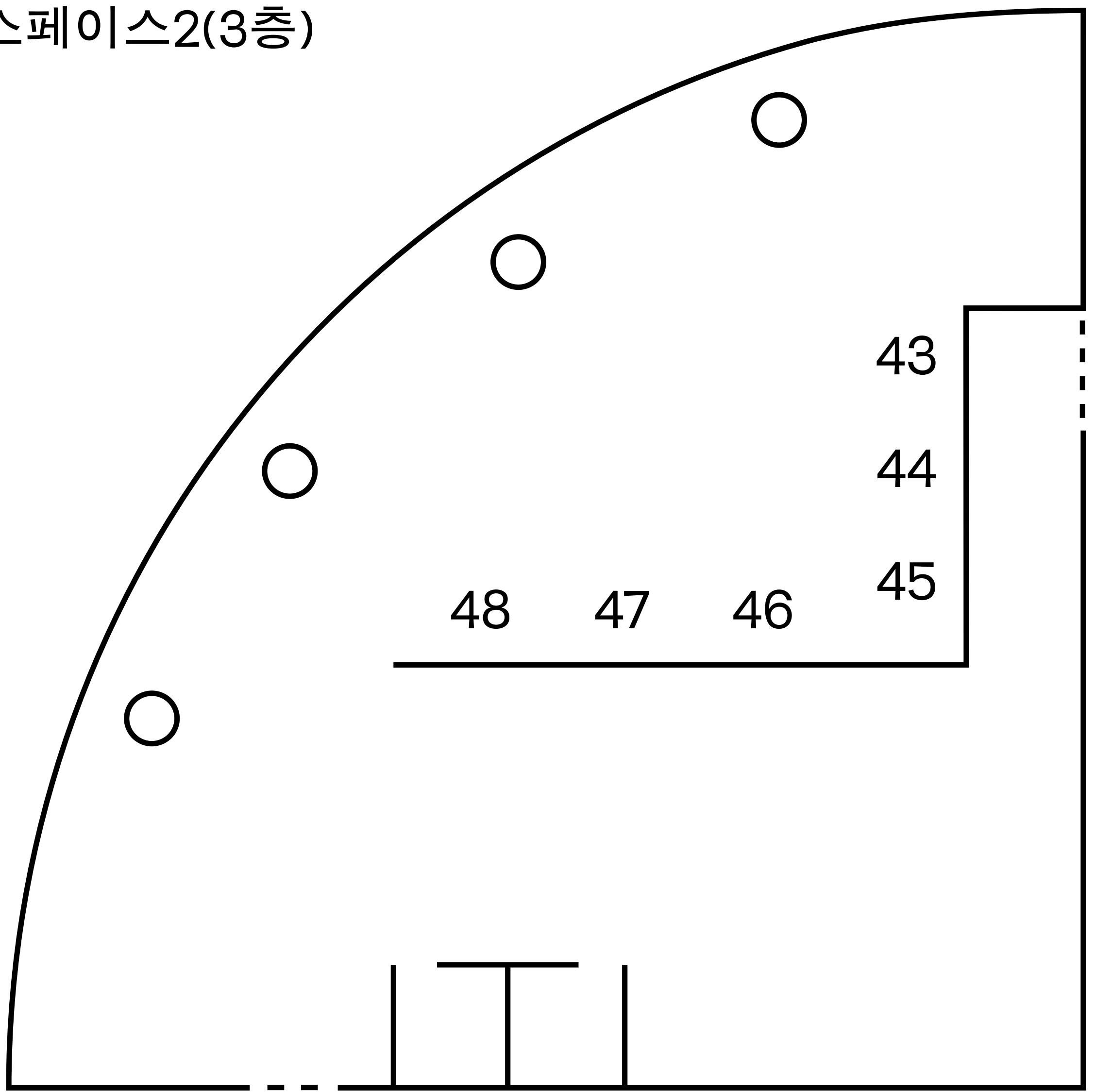
↑  
목차로 이동  
|

A

SJ

C

스페이스2(3층)



4부: 접합—배압법

- 43. <작품 74-A>, 1974, 마포에 유채, 99.5×79.4 cm.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 44. <접합 74-17>, 1974, 마포에 유채, 80×100 cm.  
국제갤러리 소장.
- 45. <접합 74-24>, 1974, 마포에 유채, 200×100 cm.  
국제갤러리 소장.
- 46. <접합 74-98>, 1974, 마포에 유채, 225×97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47. <접합>, 1974, 종이에 유채, 120×172 cm.  
리움미술관 소장.
- 48. <접합 75-1>, 1975, 마포에 유채, 170×245 cm.  
리움미술관 소장.

↑  
목차로 이동  
|

A

SJ

C

## 하종현

b. 1935

하종현은 1959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1990-1994)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2001-2006)을 역임했다. 그는 재료와 물질성에 대한 실험을 꾸준히 이어가며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해 왔다. 특히 캔버스 뒷면에서 물감을 두껍게 밀어 넣는 기법과 그 위를 쓸어내고, 긁어내는 행위를 통해 흔적을 남긴다. 2010년대 이후 그는 다양한 색채와 거울, 천 등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며 초기 실험정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종현의 작업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갤러리에서 다수의 개인전으로 소개되었으며, 주요 미술관 개인전으로는 대전시립미술관(2020), 국립현대미술관(2012), 가나아트센터(2008), 경남도립미술관(2004) 등이 있다. 뉴욕 솔로몬 R.구겐하임미술관(2023), 덴버박물관(2023), 뉴욕 현대미술관(2019), 상하이 유즈미술관(2017), 브루클린미술관(2017), 타이중현대미술관(2012), 프라하비엔날레(2009)

↑  
목차로 이동  
|

A

SJ

C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작가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솔로몬R.구겐하임미술관,  
시카고미술관, 도쿄도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  
목차로 이동  
↓

**A**

**SJ**

**C**

## 관람 시간

12:00-19:00 (월요일 휴관)

## 입장료

10,000 원(25세-64세) / 7,000원(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 5,000원(9세-18세) /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 CIMAM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 도슨트 가이드 투어

일시: 화요일-금요일, 일요일 오후 2시, 4시

토요일 오후 2시, 3시, 4시

소요시간: 40분

신청방법: 사전 신청(웹사이트 참고) 및 현장 접수

## 전시 연계 강연

〈하종현: 실험정신의 지속〉

일시: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강연자: 안휘경(솔로몬 R. 구겐하임재단 글로벌전시 수석 및  
아시아미술 큐레이터)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목차로 이동  
↓

A

SJ

C

하종현 5975

2025. 2. 14. – 4. 20.

주최: 아트선재센터

후원: 국제예술문화재단

기획: 김선정

협력: 조희현

진행: 남서원

자료조사

: 이지연, 최수영

공간 디자인

: 최승호

공간 조성

: 삼호기획

작품 재제작

: 삼호기획, 지성시공

운송 및 설치

: 아트인

조명: 문현성, 윤재일

컨디션 체크

: artC&R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

: 김현미

심포지엄 진행

: 최서영

홍보: MAG PR&Image, SUTTON

그래픽 디자인

: 워크스

영상: 이의록

사진: 남서원

번역: 콜린 모엣

작품 대여

: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갤러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리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홍익대학교박물관

도움주신 분

: 국제갤러리

(주)에이치에이

티나킴 갤러리

(재)하종현예술문화재단

↑  
목차로 이동  
|

A

SJ

C

## 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 김선정

부관장

: 문지윤

전시팀장

: 조희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남서원

경영운영지원팀장

: 이미선

에듀케이터

: 김현미

시설관리부

: 문현성, 윤재일

인턴: 유승아, 이정민

© 2025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http://www.artsonje.org)

↑  
목차로 이동  
|

A

SJ

C